

국내 기업, 캄보디아 협업·글로벌 진출 청사진 마련

지역벤처협회·한캄교류협회
기술교류회·매칭 컨퍼런스 참석
교육·노동·금융 등 고위 인사 소통
“플랫폼 활성화…생태계 조성 앞장”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한캄중소벤처기업 교류협회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국내 기업들의 사업 확장 계기를 마련했다.

현지 노동·교육·금융·대학 고위 인사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추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구상이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광주·전남 및 수도권 6개 벤처기업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캄 기술교류회’, ‘기업 매칭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구 1,700만명의 ‘젊은 국가’ 캄보디아는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투자처로 떠올랐다.

지난해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및 역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교역 및 투자 증진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박철희 상임고문, 정원일 사무총장, 광주테크노파크 윤승호 팀장, ㈜나야넷 구영모 대표, 위카모빌리티㈜ 정태영 대표, ㈜드림트리 윤선준 대표, ㈜셀리안츠 정우근 대표, ㈜에코피스 채인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첫날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임시는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주테크노파크 우수사례로 손꼽는 창업기업 실증 지원 사업과 현지 정부의 협업을 제안했다.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가 절실하다고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인 나야넷과 자동차 진단 및 중고차 판매 플랫폼 전문기업인 위카모빌리티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어 코이카 캄보디아 간담회가 열렸다. △수처리 및 AI를 활용한 환경 솔루션 기업 에코피스 △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셀리안츠 △왕립프놈펜대학교 환경공학과 Sao Vibol(싸오비볼) 학과장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가 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

프놈펜무역관 윤하정 관장과 간담회에서는 캄보디아 시장 현황 설명 및 현지 우수한 기업 매칭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한국 기업들이 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캄보디아 재무부 산하 창업 발전 기금운용사 △유롭게 투자사(크마에 엔터프라이즈)와 비즈니스 미팅도 마련됐다.

드림트리, 나야넷, 위카모빌리티를 비롯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캄보디아 본격 진출 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적인 공유와 협업 사업을 이끌어 내기로 합의했다.

왕립프놈펜대학교 NICC와 공동 개최한 기술교류회에 참여한 국내·캄보디아 기업들은 상호 사업 아이디어 공유 및 인사이트를 습득했다. 성과있는 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현재 NICC에 입주, 현지 오피스로 운영중인 ‘한캄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의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플랫폼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캄교류협회 관계자는 “젊은 일정에도 박정욱 주캄보디아한국대사 면담과 프놈펜 상권 및 시장조사, 산업 및 온라인 인프라, 문화, 음식, 물가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기본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세웠고 한캄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를 플랫폼으로 활성화해 새로운 벤처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은행이 최근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금융특강’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특강 ‘호응’

생활 밀착형 금융지식 제공
정착지원·금융 자립 기반 마련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금융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금융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신경구)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은행 계좌 개설 절차, 합리적인 카드 사용 방법, 신용점수 관리 요령, 금융사기 예방 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 고훈 센터장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

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지식을 함양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기관과 협력해 금융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는 광주·전남 최초의 외국인 전담 점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 형태에 맞춰 일요일에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연수 기자

광주신세계, 어버이날 선물 특별 기획상품 이벤트

㈜광주신세계가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가전·꽃·과일바구니 등 가정의 달 기획상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본관 8층에서는 안마의자 브랜드 ‘세라젬’과 ‘바디 프렌드’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세라젬에서는 ‘마스터 V9’을 최대 50만원 할인 혜택에 판매하며 ‘세라봇’ 흡착물걸레 로봇청소기를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바디 프렌드는 ‘퀀텀(B&O)’, ‘파라오네오’, ‘에덴로보’, ‘다빈치’ 제품 구매 시 마사지베드 ‘아미고’와 마사지 소파 ‘에이프’ 중 하나를 추가로 증정한다.

면역력과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정관장’에서는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화애랑’과 호불호 없이 선물하기 좋은 스테디셀러인 ‘홍삼톤’ 등 인기 아이템 10종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밖에도 ‘강개상인’의 꿀은 30%, ‘레이벌’의 ‘프로 폴리스’, ‘프로 코사놀’도 할인가에 만날 수 있다.

본관 지하 1층에 꽃집 ‘남산농원’에서는 오는 18일까지 4만원 이상 사전 예약으로 꽃을 구



광주신세계 본관 8층 ‘바디 프렌드’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매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푸드마켓’에서는 오는 15일까지 15만원 이상 과일 바구니 구매 시 광주지역에 한해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광주신세계 김영민 식품생활팀장은 “어버이

날을 맞이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마련했다”며 “광주신세계가 준비한 가정의 달 프로모션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중소기업 범위 확대…1500억→1800억 상향

소기업 매출기준 120억→140억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이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학계·전문가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준을 조정하는 데는 성장 사다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와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한정하는 지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마련된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중기업 6만3,000개·소기업 566만7,000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GICON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실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30일까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광주메타버스지원센터’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 현장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확장현실(XR)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고 기존 개발 콘텐츠의 고도화, 실증·상용화 지원 등으로 지역 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사업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 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이다.

신청은 △전략산업형 △스타트업 △콘텐츠 고도화 등 3개 분야로 중박 지원은 불가하다. 총 6개사를 선정해 과제별로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총 5억2,000만 원 규모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으로 제안할 경우 광주 소재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참여율(과제비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홍승현 기자

금타 ‘타이어프로’ 신규 TV광고 선포

‘금타 제작 프로가 관리’ 컨셉

금호타이어는 유통전문점 ‘타이어프로’ 신규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금호타이어가 만들고, 타이어 프로가 관리합니다’를 컨셉으로 제작됐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워 기술명가 금호타이어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타이어프로를 통한 전문적인 관리까지 포함된 솔루션을 제공하

는 기업임을 표현하려는 의도다.

광고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 3종을 통한 제품 기술력과 금호타이어가 만든 타이어 프로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구성의 광고영상이다. 자사 디자이너, 연구원, 성능평가 테스터 등과 타이어프로 직원(정비사)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국내 지상파 및 케이블, 중편 등 주

요 채널 TV광고를 포함해 티빙, 티맵, 네이버와 같은 디지털 매체 등 고객과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는 “이번 광고 캠페인은 기술명가 금호타이어의 신제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타이어 제조사의 타이어 전문점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어필하면서 타이어프로의 역할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다”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이어프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